

# 경기불황·인식 변화...중고의류 ‘新바람’

옷감이 부족해 군부대에서 나온 군복을 물 들어 입고, 외국 중고 옷을 수입해 매매했던 구제(舊製) 의류가 경기침체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버룩시장이 일반화되면서 남이 쓴 물건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 저렴한 구제 옷을 입는 알뜰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뜰 소비로 인해 광주시 동구 금남로지하상가 등지를 중심으로 구제 의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18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문화전당 인근 금남로지하상가 일대에 구제 의류매장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이곳에 과거 1~2개에 불과했던 구제 의류매장이 한꺼번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관련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싼 옷으로 한 철 개성 살리자”**  
**광주 금남상가 등 10여곳 성업**  
**청바지·가을점퍼 5천원~1만원**  
**농어촌 등지서 ‘회용’으로 구입**  
**국산 구제 의류 매장도 등장**

옷이 낡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싫증 나서 입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고, 싼 옷을 여러 벌 구입해 개성을 살려 입으면 된다는 생각도 구제 매장의 매출을 늘려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한다는 게 구제 옷 매장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금남로지하상가 구제 매장에서는 청바지와 가을 점퍼 등이

적게는 5000원~1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500원~2000원 가량의 셔츠도 구입할 수 있다.

이곳에서 구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구제 옷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매출 증가의 중요 요인이고, 싼 옷을 사서 한철 입겠다는 소비자가 늘어나 구제 매장 수도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10여 곳의 구제 의류 매장이 몰려들면서 관련업종의 집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일대 지하상가는 소비자의 발길이 다소 뜸해 한 때 빈 점포가 많았는데, 구제 의류매장의 매출이 늘면서 일부 업주가 2개 이상의 구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전체 상권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곳의 주요 고객은 중장년층과 외국인 등으로 분석됐다. 또 농어촌 등지에서 구제 옷을 작업복으로 대량 구입해 가는 경우

도 늘었다. 일을 한 뒤 세탁해 옷을 다시 입기 보다는 저렴한 구제 옷을 사서 입을 한 뒤 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작업복으로 구제 의류를 찾는 농·어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구제 의류의 대부분이 외국산이었던 것과는 달리, 국내 옷을 매매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구제 옷을 들여왔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팔렸던 가죽 등 의류를 싸게 되파는 구제 옷 가게도 생겨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금남로지하상가 이외의 지역에서도 구제 의류 매장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남구 봉선동과, 쌍촌동, 오치동 등지에도 구제 옷 매장이 각각 2~4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 中 경기부양·美 금리인상 지연 ‘호재’ 박스권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

지난 7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반도체 부문 판매호조 및 환율 효과에 따라 실적 추정치 발표액이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분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시장예상치 대비 10.7% 상회했다.

이런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타 수출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작용하면서 2000P 상회하여 한 주를 마감했다.

국제유가 역시 채굴장비가 전주대비 26개 감소하면서 2주 연속 감소세 유지되면서 원유 공급과잉 우려 해소 기대감으로 주간 기준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번 주는 수급이 비어 있는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예상된다. 이번 주 역시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과 미국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으로 추가 상승도 예측된다.

단, KOSPI 2000P 돌파에 따른 펀드 환매 자금 가능성이 있고 13일에 발표되는 중국 수출 지표발표가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작용할 수 있어 2050P 이상 상승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은 수출주의 환율효과가 예상보다 확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형성돼 3분기 여는시즌에 대한 우려는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증시 역시 환율 관련 대형주(IT, 자동차, 인터넷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강세가 중소형주의 상대적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주요 매크로 변수의 방향성이 엇갈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실적 호전 예상주인 IT하드웨어, 자동차, 섬유, 유틸리티 및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혜종 등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윤자웅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보해양조 자원봉사단 젊은임새 부라더 18기가 지난 17일 광주 남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우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 보해양조 ‘젊은 임새 부라더’ 18기 남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첫 봉사활동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자원봉사단 ‘젊은 임새 부라더’ 18기가 지난 17일 광주 남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젊은 임새 부라더’는 보해양조 임직원과 광주, 전남·북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다. 2006년에 ‘젊은 임새 사랑나눔미’ 봉사단을 발족한 이래, 400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대학생과 함께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실천해 왔다. 올해 9월에는 ‘젊은 임새 부라더’로 단명명을 바꾸고 18기를 선발하는 등 꾸준히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젊은 임새 부라더’ 18기는 장애인 이해 및 예방 교육을 받았으며, 장애인

을 몸소 체험해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UCC를 만드는 등 장애우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보해양조를 지금까지 있게 한 원동력은 지역사회의 성원 때문이었다”며, “젊은 임새 부라더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실천하며,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젊은 임새 부라더’ 18기는 이번 첫 활동을 시작으로 매달 1회, 지역 사회 복지 단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청년층 80% “서비스 일자리 원해”

#### 고민 1위 ‘경제적 문제’

우리나라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80%는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67%가 희망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전국 19~39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청년층 37.7%가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일자리

라는 응답은 25.6%였고 이성문제(11.6%), 학업·진로(11.6%), 가족문제(7.2%)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 88.9%는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며 57.3%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층 80%는 행정, 콘텐츠, 교육,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청년층 55.1%는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고 봤으며 85.2%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청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67.1%는 희망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인삼음료·아이스크림 중국서 잘나가네

#### 9월 23만달러...작년비 143% ↑ 아이스크림 50만달러...333% 늘어

인삼음료와 아이스크림의 중국 수출이 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농식품 중국 수출액은 77억7217만3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억400만달러)보다 7% 증가했다.

특히 중추절 기간(9월 26~28일) 홍삼 등 인삼 음료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한 데 힘입어 9월 인삼음료의 중국 수출액은 작년 9월보다 143% 증가한 23만달러였다. 중국 최대 소비 시장인 상하이(上海)와 화둥(華東) 지역 약국 등으로 최근 인삼음료 판매채널이 넓어진 점도 수출 증가에 한몫했다.

9월 아이스크림 수출실적은 50만3000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3%나 늘었다.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은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수입 제품이 잘 팔린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21	28	31	36	45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54,745,000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7,219,946				46
3	5개 숫자일치	1,615,788				1,629
4	4개 숫자일치	50,000				80,167
5	3개 숫자일치	5,000				1,341,175



광주은행, 군부대 위문금  
광주은행은 최근 김한 은행장(왼쪽)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판문점 지역 견학행사를 펼치고 보병 제1사단(사단장 이종화)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대대장 우석제)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법원경매 낙찰대리,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추천물건**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9057	근린시설
	2014타경 29078	숙박시설
	2014타경 30504	근린주택
	2014타경 30504	골프장
	2015타경2247	근린시설

\* 광주지역 외 추천물건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NPL 질권대출 · NPL 매입,매각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거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 전국최저금리!!! 전국최고 한도
- NPL 잔금 5.2% ~ 5.9% • 중도상환 無

경락잔금 대출, 경매취하 자금 대출 담당자 김기남 팀장 010-4444-7424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담당자 이수진 이 사 010-2170-3034  
김태훈 본부장 010-4557-3034